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무릇 도(道)란 어디를 가도 없는 곳이 없고 어느 순간에도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선들 공부를 그만둘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때인들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할 때에는 경을 유지하는 것[持敬]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삼가고 엄숙하고 고요한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사이에 이치를 궁구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혼자 있는 곳에서 살피기를 더욱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 (후략).

- ① 도덕규범을 모두 버리고 도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경건한 마음으로 이치를 탐구하고 성찰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 ③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모든 관념을 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
- ④ 공부가 지극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의 가르침을 탐구한다.
- ⑤ 마음이 엄숙하고 고요해지도록 분별적인 지식을 제거해 나간다.

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본성과 운명에 따라 할 일을 정해야 욕구의 횡포로부터 벗어나고 덕을 따를 수 있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을 검토해야 한다.
을: 본성에 심어진 일차적 선은 쾌락이다. 그런데 쾌락이라고 다 선택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다 피하는 것도 아니다. 이 중 무엇이 득과 실이 되는지를 측정,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 ① 갑: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불굴의 의지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을: 쾌락을 누리려면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 ④ 을: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욕망과 쾌락도 사라짐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갑, 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수행해야 한다.

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공화국 간에는 평화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 ① 갑: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 형태는 세계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 ② 갑: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을: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 ④ 을: 평화 추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쟁의 종식에 두어야 한다.
- ⑤ 갑, 을: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색(色)은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 고통[苦],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없앤 상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른 도(道),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잠들어 있는 것과 같으니라.

- 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 고통 없는 경지[涅槃]로 나아가야 한다.
- ②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도 윤회(輪廻)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③ 고통을 없애려면 여덟 가지 수행 방법[八正道]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오온(五蘊)의 참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연기(緣起)를 바르게 통찰하면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5. 가상 대담을 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을 추구하는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성의 인도에 따라 자기를 보존하고 신을 지적으로 사랑한다.
- ② 신 또는 자연의 속성을 파악하여 세계의 필연성에서 벗어난다.
- ③ 감정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준수한다.
- ④ 이성을 통해 만물의 궁극적이고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한다.
- ⑤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생긴 악을 극복하기 위해 신에게 귀의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는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생산 수단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을: 국가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는 것은 치명적 자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유흥성은 우리의 동의와 시인(是認)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서의 유흥성은 우리 자신의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유흥성이 항상 자기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도덕의 기원을 대부분 설명해 주는 원리가 놓여 있다.

<보기>

ㄱ. 도덕적 행위를 직접 유발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ㄴ. 이성적 판단은 도덕적 추론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ㄷ. 공감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에 보편성을 부여하는 근거이다.
 ㄹ. 사회적 유흥성은 공감에 의해서 시인의 감정을 일으킨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마음[心]과 이치[理]는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마음[心]이요, 실제적인 것은 성[性]이다. 신령하게 밝은 것은 곧 깨닫고 느끼는 주체이다.

을: 마음의 본체[體]는 성[性]이요, 성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바깥에 성이 있고, 성 바깥에 이치가 있겠으며, 이치 바깥에 마음이 있겠는가?

<보기>

ㄱ.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ㄴ. 성[性]과 마음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ㄷ.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情]을 주재해야 하는가?
 ㄹ.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천리[存天理]의 보존[存天理]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갑: 자유란 사적인 형태의 예측이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해 자유는 권력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예측으로 인해 자유가 부정되면 시민들은 공포에 빠진다.

을: 자유란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목표를 추구할 때 외부의 의도적인 강제로 인해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보기>

ㄱ. A: 자유를 실현하려면 권력의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을 배제해야 하는가?
 ㄴ. B: 법의 지배로 인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는 위축되는가?
 ㄷ. C: 적극적 자유가 아닌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아야 하는가?
 ㄹ. C: 국가가 시민에게 좋은 삶을 위한 덕목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지니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얻으려 하고 적절한 제한이 없으면 분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성왕(聖王)은 그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책무를 나눠서 욕구를 조화시키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였다.

을: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함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王]이 왕도(王道)를 실천하지 않음은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① 갑: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관직이 분배되어야 한다.
 ② 갑: 규범을 제정해서 욕망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
 ③ 을: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을 군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④ 을: 군주가 군주답지 못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를 교체해야 한다.
 ⑤ 갑, 을: 예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한 후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은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은 중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경전에서 “깨달기만 하면 된다[一覺了].”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오직 한 마음[一心]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뿐인 본디 맑은 마음이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 똑같다는 의미이다.
 을: 중생은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 자신 밖에서 붓다를 찾는다. 이는 자성(自性)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밖에서 닦지 말고 돈교(頓教)의 이치에 따라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본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

—<보 기>—
 가.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나.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불성(佛性)이 있다.
 다. 중생도 염불만으로 이상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라. 깨달은 순간부터 과거 행동의 결과는 모두 사라진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1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선의 이데아에 근거를 둔 절제와 정의는 아름답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반면, 무절제와 불의는 달콤하고 얻기 쉽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다.
 을: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며, 인간 본성에 따라 나오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① 갑: 감각 능력을 키우면 영원불변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갑: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 ③ 을: 지성적 덕과 달리 품성적 덕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
- ④ 을: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알려 주는 품성적 덕이다.
-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18.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본연지성은 가리키는 바가 이(理)에 있지 기(氣)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선무악하다. 만일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와 함께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性)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을: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결코 두 가지 성(性)이 아니다. 기질 중에서 이(理)만을 가리키면 본연지성이고, 이와 기를 합하여 말하면 기질지성이다. 성이 이미 하나인데, 정(情)에 어찌 두 근원이 있겠는가?

- ① 갑: 본연지성은 품부받은 기질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 ② 갑: 이와 기는 개념상 구분되지만 그것들의 발현 과정은 서로 다르지 않다.
- ③ 을: 이와 기는 분리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작용하지 않는다.
- ④ 을: 천리가 기질에 들어와 이루어진 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이는 기의 근원이므로 기에서 독립하여 홀로 존재할 수 있다.


19. 갑,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을 믿는 자는 처음에는 신의 권위를 따르지만, 나중에는 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진리의 빛을 관조할 수 있게 된다.
 을: 인간은 감각에서 출발하여 본성적으로 주어진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의 신을 인식할 수 있다.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절망은 신앙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 ① 갑: 전능한 신은 선의 결핍인 악의 최종적인 존재 근거이다.
- ② 을: 도덕적 문제에서는 신의 명령보다 이성의 명령이 우선한다.
- ③ 병: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 결단으로 절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④ 갑, 을: 참된 행복을 위해 신앙뿐 아니라 신의 은총도 필요하다.
- ⑤ 을, 병: 이성적 추론과 실존적 자각으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연속적인 동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원에는 자신, 다음 원에는 가족, 이어서 이웃과 지역 단체, 같은 도시의 시민과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의 바깥에 인류 전체라는 가장 큰 원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 원들을 중심으로 끌어당겨 모든 인간을 우리의 동료 시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 ② 누구도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 ③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도덕적 의무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 ④ 보편적 인류애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 대한 친밀감을 중시해야 한다.
- ⑤ 어떠한 편견도 타인을 혐오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